



러년 한국 최고의 트레이너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그의 인연으로 그는 복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다른 선수들과 스피링 상대로도 활약했다.

그러던 어느날 방송에서 예비급 세계인이 될 경기가 소개되었는

데, 해설자와 설명 중에 주심이 미안한 편사라는 말이 덧붙인 건가 싶었다. 미국에선 진권자를 가진 일반인이 스포츠 심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도 있었다. "그 순간 '바로 저게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심판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복싱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를 시작했고, 특히 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 그러나 기회가 없었다. 당시 국내 심판은 모두 복싱선수 출신들이어서 시험을 한 적이 없는 이 원장은 업무도 못 볼 형편이었던 것이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준비를 하던 중 드디어 기회가 왔다.

세계유일의 한의사 출신 복싱 국제심판

96년 아시아복싱협회(PABA)가 결성되면서 새로이 심판진 결성이 필요해진 것이다. 몇 년간의 준비 끝에 그는 99년 3월에 정식 국제심판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리고 8월에 첫 공식대회를 치렀다. 중국 상하이에서 벌어진 남북대회였는데, 두 거일의 부심으로 활약했다.

세계 복싱계는 두 개의 복싱단체 WBA, WEC가 주축이 되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복싱계의 핵심인 중남미 지역단체와 아시아를 대표하는 단체가 중심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중심축이 바로 PABA인데 96년도에 결성되어 현재 42개국 가입해 있다. 여기서 챔피언이 되면 중남미 단체 소속선수와 겨룰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여기서 승리할 경우 WBA와 타이틀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협회이다. 현재 PABA 소속 한국 국제심판은 4명에 불과하고, 그 중 이만영 원장이 있는 것이다. 이 원장은 올 11월 주심으로 첫 데뷔했다.

"주심은 서 가지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는 심판 세계에서 나름대로의 틀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심판은 무엇보다 체력이 중요하다. 선수와 비슷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게임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그는 얼마 전 조선일보에서 주최한 미라톤대회에서 10km 구간을 완주했다. 둘째 영어구사의 문제이다. 국제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복싱게임 룰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국제심판 중 주심으로 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한국심판들은 모두 부심으로만 활동했다. 그만큼 이 원장은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 복싱 중흥을 위해 뛰어낸 선수 나연이

"현재 한국 복싱계는 침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아미로 과도기의 과정에 있는 것이고, 잉그리 정신이 쇠퇴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70년대 말에는 세계 챔피언이 되면 돈과 명예가 보장되었다. 80년대엔 복싱 중흥기들이 있었다. 그러다 경제사정이 요철되고 사회가 풍요해지면서 복싱은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때 갖기며 온 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합동고 격한 운동을 꺼리는 젊은이들과 사회적 분위기가 복싱을 반감으로 돌아갔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제 세계적인 복싱 흐름은 완전히 소멸하는 경향과 태너아프리카의 고급스포츠로 가는 경향 등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태너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복싱은 대항아프리카되면서 값비싼 입점료를 내고 관망하는 고급스포츠로 자리잡은 것이다. 그런데 국내에선 고급스포츠로 자리하지 못하고 대중적 인기도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에 가면 복싱 열풍이 대단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선수와 심판의 상관관계 체육부장관실에서 권력의 부재 등에 진행된다. 워낙 상에서 시험이 있었는데, 공방에 선수들과 심판진이 내릴 때면 정통의상을 차려입은 황영인씨가 둘러보고 시대를 지나갈 때는 카피판이드가 펼쳐진다. 시험은 국영방송을 통해 중계되는 등 선대만 잔치마당이 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고, 우선 선수가 없다. "관중을 모을 만한 뛰어난 복서가 없습니다. 복싱엔 무엇보다 선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PABA 회장을 맡고 있는 상당섭 씨가 WBA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등 국내 인사들이 세계 복싱계에서 발언권을 갖고 있는 반면, 선수들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이 원장은 말한다.

복싱과의 인연이 아버지와 영한 때문이듯 이 원장이 한 의사가 된 것 또한 친구의 영향이 컸다. '친구 따라 장남 간다는 말'의 예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그제 같은 반 친구의 할아버지가 한의사였는데, 친구는 이미 한의학과에 진학